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개역, 히브리서 5:11~6:2]

부부가 싸우더라도

후 시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그날의 문제만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당신,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춰내기 시작하면 싸움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친정도 들먹이고 시집도 들먹이면 끝장을 봐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시더라도 절대 옆으로 새지 마십시오. 예전의 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지 못할 게 틀림없으니 절대 옆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쭉 해가다가 옆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옆으로 쏜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빠졌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던데, 히브리 기자는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마무리 짓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랬을까요? 오늘은 히브리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기자가 잠시 옆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요약

히브리서의 핵심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탁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그는 그 어떤 사람이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귀한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뒷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5절은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라는 것은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란 말이죠.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5장에서는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인데 예수는 아론의 후손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점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아론은 사람이지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장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지 설명을 계속합니다.

잘 나가다가..

그런 다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 11절에 걸립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겠다 싶어서 그만 얘기가 옆으로 새어 버린 겁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옆으로 틀어버렸습니다. 13절이 옆으로 빠진나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합니다. 누가 어린아이란 말이죠? '너희가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되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참 난감하구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란 얘기는 '제발 좀 자라나 거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오래 되었음에도 아직도 어린아이니' 이 말은 흔히 하는 말로 '언제까지 얘기 노릇할거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지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 짓을 하는 거냐는 질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세, 아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새어 버린 이유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하겠다는 얘깁니까? 6장 뒷편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설명을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으니 주의해서 잘 들으라'고 경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어린이

예수 믿은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혹시 처음 교회 나와서 제가 하는 이 말에 해당되더라도, 아니면 '아, 저게 내 얘기구나' 싶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처음에는 다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처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떠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세례 받는데 '어머님,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묻거들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잘 가르쳐 났습니다. 세례 문답 때 목사가님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답이 됩니까? '우리 떠느리 죄 때문예요' 유명한 얘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깁니다. 교회 안 나오던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로 하고 처음으로 구역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도 반가워서 "오늘은 예배에 처음 참석한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에는 기도를 마쳤는데 다른 식구들이 전부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다 했는데 다들 눈을 감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또 했지요. '다 했는데?' 싶어서 보니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었다가 또 하고 끊었다가 또 하고... 어떻게 마쳤을까요? 옆에 앉아 있던 부인이 늦게서야 눈치를 채고 "이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하고 마쳤답니다.

기도라고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아빠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엄마가 반갑다고 "오늘은 아빠가 기도합니다." 하고 다 눈감아 버리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아빠가 딱 다섯 자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만세!'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그 진심만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얘깁니까?

모처럼 심야기도회에 왔는데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도중에 도망가

신 분도 있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말도 끊기고, 이야기하라면 잘 하는데 기도는 왜 그리 안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거냐 말입니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일을 많이 시킬까봐 도망가고, 회사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냐?" 소리 할까 싶어서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내고, 아니면 "너 교회 다니지? 질문 하나 해 볼까?" 그게 무서워서 아예 티도 안 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때가 오래므로'란 말씀은 '별써 예수 믿은지 몇 년인데 아직도 초보 노릇하고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니 괜찮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지 하루 이틀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 믿은지 오래지만 어린 아이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웃고 다니니? 너 왜 사는 것이 즐겁니?"라고 물으면 왜 즐거운지 그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나온 어떤 책의 제목이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이렇게 웃고 말지요'였는데 그렇게 하고 말아요? 옛날에 이름깨나 날린 책입니다. "당신 사는 모습이 뭔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말아요?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란 얘깁니다. 주변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만만한 그리스도인

같이 근무했던 어떤 선생님이 머리는 참 좋은데 좀 뼈뺌하게 좋아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쟁이한테 이런 것 물으면 참 재미있데이..." 일번 타자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면 아담이 따 먹을 줄 알았나 몰랐나?' 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 질문만 소복이 모아서 가끔 논쟁을 걸어요. 어느 날 제게 걸렸죠. "너 정말 알고 싶으면 두 시간 내라. 두 시간 내면 내가 설명해 줄게."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는 질문을 안 해요. 그 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일을 같이 했는데 제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일을 처리했거든요.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정색하고 "진짜 알고 싶으면 시간 내라." 했더니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재미로 집적거리리는 거죠. 왜요? 그렇게 집적거리면 대답하겠다고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실실 피하거든요. 재미가 나서 따라다니면서 찢러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설명하지 못한 채 피해다니기만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공부하는 아이가 영어책 하나 떼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수학책 한권 떼려면 어떻게,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성경책은? 성경책을 한 번 떼어보겠다고 마음이나 먹어보았습니까? 그나마 꾸준하게 읽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읽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십번 읽으면 도가 트이고 백번을 읽으면 뭐가 보이고' 하는 광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마는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 외에 영어책 떼고 수학책 떼듯이 성경도 한번 떼어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185장)라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현금 시간에 부르는 사람이 빵점이라면, 찬송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는 사람은 5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생각은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날 무엇주느냐, 너 무엇하느냐'는 말씀은 현

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었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찬송도 이렇게 오해를 받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못하는데 그 분이 쓰신 글을 그렇게 가볍게 읽고 치워요? 그러면 평생 어린아이로 살 수밖에 없죠.

젓이나 먹고

12절 뒤편에 ‘..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먹을 자가 되었도다’ 합니다. 젓은 먹는데 단단한 것은 못먹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단단한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은 싫은 소리나 훈련을 잘 못 견딥니다. 입에 맞는 단 것만 좋아하고 기분 좋은 소리는 잘 듣는데 조금만 야단을 맞거나 꾸중을 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싫은 소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또 단단한 것을 못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골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다니러 갔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올라왔던가 봐요. 시댁식구가 올라왔다고 평소에 못 먹는 것을 사다가 대접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도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습시다) 모처럼 시댁 식구들 왔다고 평소에 가 본 적도 없는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고 맛있는 것 사 드리고 시골로 내려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들집에 한 번 놀러갔더니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접을 잘해 주더라 참 고맙더라’ 그런 시어머니는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철없는(?)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덕에 재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 평소에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죠! 없는 돈 빚내가면서 맛있는 것 해드리고 평소에 자기는 가지 않는 곳을 구경시켜 드렸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이트 어린아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누구 위해 저렇게 싸웁니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상대방은 싸워야 할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거든요.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선진국 정치가 아니고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간혹 이상하게 주차해 놓은 차를 보게 되지요? 차를 그렇게 대어 놓으면 다른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의 길을 막아놓은 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이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숙한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사야 죽든지 말든지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된다?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부흥하면 된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죠. 이런 어린아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야 죽어 나든지 말든지 본인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덕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덕을 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신 것밖에 없잖습니까?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런 점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너희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냐는 겁니다.

수박 껍질이나 빨고

13절에, ‘대저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고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으로 배워서만 아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재미있어요. ‘수박 껍질기’ 여러분, 상상

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박 한 덩이를 갖다 놓고 절반 훑고 있으면... 표현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체험이란 쪼개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경만 하든지 껍데기에 혀만 갖다 대든지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꼭 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전라도 쪽에 유명한 음식 있죠? 홍어회?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하고 열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 왜 그래요? 맛을 아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론상으로는 알 것도 같아요. 그러나 먹고 싶지는 않아요.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이 얼마나 단지 아세요? 성경말씀도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달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체면상 읽기만 하지요. 내가 아는 주제, 낚시, 축구, 음식, 오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열을 내다가 성경말씀이 나오면 실실 수그러 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냐는 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연애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 보셨으면 어때요? 유치찬란합니다.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유치찬란한 게 연애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유치찬란인가? 뭔데요? 가슴을 찢듯하게 만드는 감동이지요! 옛날에 받아놓은 편지가 있거든 다시 꺼내서 한 번 보세요.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가슴이 찢릿찌릿합니다. 다 지나간 것이니 옆 집의 누구에게 한번 보여 줘 보세요. 남이 봐도 가슴이 쩡할까요? 정말 유치하기 그지 없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없애지도 아니하고, 뭐 대단한 거라고 접어서 묶어서 깊숙이 보관해 놓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대게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겁니다.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고 단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란 말은 맛을 알면 그렇게 소중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고 뜻도 잘 모르니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잠만 오지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성경말씀을 끌어안고 그것만 가지고 사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있으니까 그 한편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요.

저도 원래 취미가 많은 편입니다. 다 접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쓸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죠. 바둑들은 접은지가 20년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끔, 구경만 잠시 하죠. 구경만 해도 재미있어요. 한번 뒤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면서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는 무슨 맛으로? 사탕은? 갈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책망하는 결론이 뭘니까?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터인데 말은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너희가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냐는 겁니다. 빨리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선생이 되라는 거죠. 선생이 된다는 것은 꼭 가르치라는 뜻보다 어린아이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젓이나 단단한 것은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것을 씹을 줄 아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오징어는 무슨 맛으로 먹죠? 씹는 맛 아닙니까?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있는 겁니다. 사탕은 무슨 맛으로 먹죠? 서양사람들은 그걸 빠는 맛으로 먹는데 한국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안돼요. 한국 사람에게 사탕은 단맛 외에 무슨 맛이 있는냐고 물으면 콧 깨무는 맛이 있다고 할 겁니다. 딱딱하니까 깨무는 맛이 있는 겁니다. 갈비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물어 뜯는 맛으로? 단단하고 질기면 그에 따른 묘한 맛이 더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구요? 그만큼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이나 젓이 아이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그러면 먹는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영양만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씹는 맛이 있나, 물어 뜯는 맛이 있나, 깨무는 맛이 있나! 맛이 없어서 안돼요. 아이들에게는 좋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질겨야 맛이 더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죽도 아

니고 젓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단한 식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 속에 아주 귀한 맛이 들어있습니다.

힘든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선생이란 말입니다. 누구 한마디에 빠져서 '교회 안 간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견디지 못해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면 좀 귀에 거슬린 소리를 들어도, 야단을 맞아도 웃으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힘든 것을 즐길 줄 아는 선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랴도 어렵고 힘든 것이라야 노력하고 배우면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힘 안 들이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싫증도 쉽게 납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선생이란 얘기죠.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14절 뒤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매사를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온유와 겸손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란 게 뭐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그 결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6장 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합니다. '성숙하자' '자라자는 뜻이죠.

강도사의 보람

제가 영어선생을 오래 했는데요, 영어선생의 보람은 아이들이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진짜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참 재미있어졌습니다' 이런 편지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50이 다 된 강도사의 보람이 뭐겠습니까? "강도사님 식사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하는데 제가 너무 거절을 많이 해서 눈총을 받았는데 너무 거절하면 안되겠다 싶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요. 대접한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선뜻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보다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는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도사님과 같이 공부를 한 얼마 뒤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까 글자가 살아서 고물고물해요.' 글자가 살아서 스스로 자기 눈으로 마구 들어오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전에는 글자만 박힌 책이었는데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공부 이거 마약이데이, 맛 들여놓으면 못 끊는데이" 하시더군요. "성경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합시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런 말에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집 터만 댕고 또 댕고

6장 2절 끝머리에, '회혼의 터를 다시 댕지 말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계속 터만 댕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집 지을 거냐는 말입니다. 터만 자꾸 댕지 말고 그 위에 빨리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으로도 빨리 빨리 자라야 하는데 늘 젓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거냐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잊지마셔야 할 것은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회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매일 터 댕고 있는 거죠. 어찌면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은지 보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만 있는 기도가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고를 쳤고요 오늘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못난 죄인을...'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린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다 구했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끔 100점 받았다고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100점도 100점 나름이죠. 자기 혼자만 100점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다 100점 받은 거예요. 중요한 시험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받았다면 대단하겠지만 남들도 다 100점 받은 것 들고 와서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 애 붙들고 앉아서 '이 바보같은 자식이 남도 다 100점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요. 별 것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도 좀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럴까 하다가 요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랑하고 살면 안돼요?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신랑하고 한 방 할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참았다 아닙니까. 하나님 잘 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회개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더 힘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헤어지는 기쁨, 보내는 기쁨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박용규 집사님이 중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박용규 집사님이 중국으로 발령나서 간다면 앞으로 다른 분들도 그리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어떤 어떤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장차 포항제철이 확장되고 중국에서 할 일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중에 또 누군가가 가야 합니다. 아니 꼭 중국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느 분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기서 헤어지는 섭섭함보다는 거기 갔을 때 거기서 뭐 할거냐 말이지요? 회사에 충성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 그것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설교가 넘쳐납니다마는 조금만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아주 귀한 지식이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만큼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 때에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이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생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든 거죠. 박용규 집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번 드릴까 하다가 박용규 집사님은 이왕에 가는 것이니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고 부인되시는 김은옥 집사님까지 떠났으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하는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 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떠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흥 전도사님이 여기 오래 계시겠냐? 오래 안 계실지 모르니까 가시기 전에 본 전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시간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얘기를 들이나 들춰 업고... 그러더니 저보다 먼저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내게 닥쳐왔을 때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선생이 되자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고 꼭 설명해 나가다가 여기서 딱 막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좀 차리고 이제는 모두가 선생이 되자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6장 뒷편에서부터 다시 펠기세텍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냥 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하고 준비하고 또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선생이면 다 같은 선생입니까? 목사면 다 같은 목사고, 집사면 다 같은 집사입니까?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호봉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막말로 '실력으로 하자'고 나설 수 있는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이웃들에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관련한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